

얼마나 무서웠을까... 처절한 탈출 흔적에 가슴 찢기는 오열

모포 부여잡은 채... 손가락 끝마디 부러진 채... 마지막 느꼈을 공포 전해져 유가족들 실신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22일 목포 A병원의 한 직원은 진도 팽목항에서 실려 온 시신을 본 뒤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세월호 선실에서 인양된 시신은 팽목항을 거쳐 목포지역 각 병원 시신 안치실로 이송되고 있다. 각 병원 직원들은 “시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 같이 마지막 순간 고인들이 느꼈을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모습이 곧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다. A병원 직원은 지난 21일 한 여학생의 주검을 본 뒤 어른으로서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이 병원으로 이송된 여학생은 양손으로 모포를 부여잡은 뒤 눈높이까지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고 한다.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바닷물이 차오르는 어두운 선실 안에서 숨이 멎기까지 2~3분간 이 여학생이 느꼈을 공포감이 생생했다.

앞서 지난 20일 목포 B병원으로 후송된 여학생은 손가락 끝마디의 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양손의 손톱 색깔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선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안간힘을 쓰다가 난감해질거나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다거나 상처로 추정된다.

같은 날 같은 병원으로 후송된 여학생의 시신은 팔 부분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윗옷도 무언가에 걸려 찢겨져 있었다. 무언가에 쓸러거나 걸려 생긴 흔적으로 추정되는데, 병원 직원들은 아마도 선체가 기울면서 선실 바닥에 쓸러 상처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지난 19일 C병원에서 실려온 시신은 팔이 허공을 향해 들려져 무언가를 부여잡고 있

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끝까지 숨을 놓을 수 없었던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차가운 바닷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누군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A병원의 한 직원은 “사고 직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마지막 흔적이 희생자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시신을 마주한) 유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목포 각 병원 유가족 대기실엔 하루종일 통한의 울음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주검을 마주한 뒤 말을 잊지 못하거나 실신하는 이도 있었다. 아들·딸들이 극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몸부림 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일 것이다.

한 유가족은 “아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겠느냐”라며 “차라리 네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이라고 말문을 잊지 못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희생 학생의 장례식이 열려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 국화꽃이 놓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검으로 마주한 딸... 시간 멈추고 싶은 절규만 가득

팽목항 임시 안치소 표정

알뜰 배세가 시신 안치소 출입문이 열릴 때 마다 뿔어져 나왔다. 실종자 몸을 닦는데 쓰인 알뜰 배세는 불어오는 해풍에 밀려 신기루처럼 어디론가 사라졌다. 바닷가 깊은 곳 좁고 캄캄한 선실에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았던 아들, 딸들이 이제 막 주검으로 변해 천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치소에서 곧 있을 부모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팽목항 선착장을 지나 흰색 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 시신 안치소로 옮겨진 주검은 5분 가량 장례

지도사에 의해 깨끗하게 닦인 뒤 목매어 그리워하던 부모를 만났다.

33㎡(10평) 남짓되는 안치소 바로 앞 천막에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 30여명은 인상 착의 등을 설명하는 해경관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자신의 딸임을 직감한 가족들이 일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른 뒤 일어나 바로 옆 여성 시신 안치소로 몰려 들어갔다. 자신의 딸임을 확인한 엄마는 “아이고 000야! 내 새끼야”, “니가 왜 여기서 꼭꼭 숨고 있냐, 엄마가 왔다”라며 울부짖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자식에게

말도 걸고 일어나라고 애원도 해보고 식어버린 몸을 주무르며 통곡했다. 수확여행 보낸 딸을 주검으로 마주한 아빠는 말없이 “영영” 울부짖다가 절규하기를 반복했고, 급기야 몸을 가누지 못했다. “너를 어떻게 보내니. 내 새끼야. 미안해서 어떻게 보내니.” 또 다른 아버지의 절규도 이어졌다.

실종자의 주검이 임시 시신 안치소로 옮겨질 때마다 믿기지 않은 현실을 거부하고 시간을 멈추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절망, 오열과 절규가 팽목항을 뒤덮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아남은 아이들 죄인된 심정... 더딘 구조 애탄다”

생존자 학부모들 대국민 호소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자 학부모 20여명은 2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교육지원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구조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7일이 넘었지만 ‘구조작업은 더디고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이러 “정부는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 대응에 온 국민이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민·관 역량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은 그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론은 이슈가 아닌 진실을 보도해달라”며 “아이들은 창문을 바라보다 물이 들어올까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인론 취

재정쟁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비극 그 자체이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도, 하늘로 간 아이들도, 살아남은 아이들도 모두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이라며 “살아남은 아이들이 죄인된 심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을 위해 정부와 모든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화꽃만 덩그러니...



‘살신성인’故 박지영씨 영결식.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故 박지영(22·여)씨의 영정이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화대병원 장례식장 분향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신 인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시신을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시신이 안치된 목포와 진도지역 병원 인근 주민센터와 병원 중앙서버가 24시간 운영되며, 주민센터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한 직원 2명이 비상 근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24시간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본으로는 친인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직계가 아닌 친인척이 시신을 인계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지금까지 발급이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NAVER 검색엔진 대비플러워 등 최선으로

단비플러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 (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꺽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